

그러므로 우리 수련생들은 함부로 책을 만들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혹은 그것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당신이 비록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정법시기에 어떤 누락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는 어떤 일에도 주의해야 한다. 장래의 인류를 놓고 말하면, 사람의 도덕은 모두 제고되고, 사람마다 준수(遵守)하고, 사람마다 모두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마다 모두 감독할 것이다. 지금은 안 되는바, 사악이 틈을 타고 있고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책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더욱 안 된다.

대만어로 번역하는 것을, 나는 당신이 대만어로 번역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서 하면 안 되는데, 이 점을 나는 똑똑히 말한다. 대법의 것을 누구도 혼자서 함부로 할 수 없다. 물론, 현재 중국대륙의 특수한 환경에서 수련생들이 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괜찮지만, 원서의 문자 한 점도 움직이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중국 대륙 이외는 안 된다.

제자: 노수련생의 대법에 대한 가장 깊은 체험은 바로 법에 대한 견정함과 사부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여쭙고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실이다. 물론, 당신들이 개최한 이 교류회는 사실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무 빈번하게 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수련생들이 다녀오고 다녀가게 되면 법을 실증하는 그의 일에 영향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류회는 그래도 열 필요가 있으며 단지 너무 빈번하게 열지 말아야 한다. 또 법을 실증하는 일부의 단체 활동도 반드시 해야 하며 상호간에 배합하고 협조해야 한다. 당신은 집에서 아주 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일은 여러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데, 당신은 하지 않았다.

제자: 제자는 때로 세간의 재난을 포함해서 일부 곧 발생할 일을 볼 수 있는데, 써내어 세인들을 놀라게 해도 됩니까? 여전히 구(舊) 우주의 배치를 본 것입니까?

사부: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세인들을 놀라게 하지 말고 중생을 구도해야 한다. 수련생이 보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상황이다. 하나는 내가 방금 당신들에게 말한 그 신체(身體)인데, 자신의 신체 체계범위의 당신의 신체이다. 더욱이 우리 대법제자들의 잘 수련된 그 부분, 그의 신체 또한 갈수록 커지며, 포용하고 대응하는 우주의 생명도 갈수록 더 많아진다. 그렇다면 안

에서 발생한 일은, 실제상 또한 우주의 일부분에서 발생한 일이다. 아주 많은 수련생들이 자기 신체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 또한 우주 중에서 발생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제자들이 만약 매 사람마다 모두 수련을 잘 하여 사람마다 한 천체를 대응한다면, 전체 우주를 전부 포함하기 때문이다. 바로 당신들의 발정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실제로 당신이 본 것은 다만 당신의 수련 중의 상태이며, 또한 단지 당신이 자기 자신의 수련 중에서 표현해낸 것으로서, 단지 이럴 뿐이다. 물론 그것은 부동한 형식으로 당신 여기에 대응하여 당신에게 보게 하지만, 어떤 때는 안팎을 똑똑히 가리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일부 수련생들은 삼계 내에서 총체적으로 곧 발생하려는 어떤 일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우 적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모두 새롭게 배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매우 많은 예언을 포함해서 그것의 후기가 맞든 안 맞든, 그것이 사악에 대해서는 놀라서 떨게 하고 세인에 대해서는 일깨워주는 작용을 하며, 세인에게 경고하여 깨어나도록 해주기에 그것은 일부 정면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법제자들은 어떤 예언에 따라 해서는 안 되며 당신은 대법에 따라 해야 한다!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바에 따라 해야 한

나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마치 아주 피동적인 것 같지 않는가? 아니다. 당신이 잘 닦은 그 면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해도 모두 되며, 어떻게 해도 이 일들을 모두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곧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함을 알면 당신은 하라. 당신이 하면, 당신의 지혜는 끊임없이 올 것인데 그 시기에 당신의 잘 닦은 그 면이 당신의 이 면과 함께 융합하고 관통되기 때문이다. 신이라, 못할 것이 없는바, 당연히 그 작은 일은 단번에 풀리게 되고, 지혜가 오는데, 그것은 다른 상태이다. 안 되면 그 때에 가서 사부도 당신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웃으심) (박수)

제자: 대만제자들이 사존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대만의 한 수련생이 『전법륜』, 『정진요지』 등을 대만어로 번역하고, 배경으로 ‘보도’, ‘제세’ 음악을 사용하여 세트에 대만 돈 500원(元)에 판매합니다.

사부: 설법에 음악을 넣으면 안 된다. 대법 음악도 안 된다. 나의 모든 출판 일은 모두 통일적으로 책임진 수련생이 관리한다. 또 이것을 말하자면, 모두 계약이 있는 것이다.

정념으로 하면 모두 잘할 수 있다. 물론 좀 사고(思考)하는 것은 맞으며 역시 무슨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늘 많은 시간을 사고한다면 정법의 위덕을 수립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그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제자: 어떻게 하면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리 속에서 집착의 틀 속으로 빠지지 않고, 또한 각 방면에서 원용하여 정법의 최후 노정에 더욱 정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법의 일을 하고 법리를 이해함에 단지 어느 각도만을 향하지 않고 각 방면으로 원용할 수 있습니까?

사부: 여러분들은 때때로 문제를 고려하면서 모두 한 가지 습관을 양성했는데, 나는 한 가지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고하는데, 어이구, 스스로 아주 전면적이고 아주 완벽하다고 여긴다. 일단 하려고 하면 진정한 실제 상황 그것은 변화가 무궁한 것으로 잘 안 된다. (웃으심) 안 되면 또 다시 사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념을 사용하라.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그렇게 하라. 부딪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신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정념이 강하면 일체가 모두 순조로울 것이며 틀림없이 잘할 것이다.

다! 당신 또한 다른 것을 보고 하지 말라. 진상을 알리는 가운데서 아주 많은 예언들은 사실 당신들이 속인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가? 속인에게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며, 옛날사람들도 이런 사건들을 말했는데 바로 세인들을 훈계한다. 그것은 결코 대법제자 자신의 수련에 참조하여 보라는 것이 아니다! 대법제자들이 만약 오늘의 이번 박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이런 예언들을 찾아내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 이치이지 않은가? 대법제자들은 바로 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역사를 창조하고 있고 당신들은 미래를 창조하고 있으며 누가 배치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 본 것이라도 모두 과거의 것으로, 이미 개변된 것이다. 설사 우연히 부딪힌 몇 가지 사건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배치 중에 필요하기에 배치한 것으로서 그것은 단지 이럴 뿐이다.

제자: 7.20 이후에 법을 얻은 대법제자가 최근 특대형 차사고를 당했는데 평안 무사하여 속인들은 신기하다고 합니다.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법시기에 발생한 이런 일은 모두 누락이 생겨 사악에게 빈틈을 뚫린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값는 요소가 있습니까?

사부: 내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어떤 수련생이 잘 하지 못해서 조성된 것이 아닌가? 또 하나의 원인은, 신수련생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신수련생에게는 난(難)이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비교적 적으며, 일반적으로 난(難)이 있어도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어떻든 이런 일에 대해 모두 그것을 개의치 말라. 사고가 있었든 없었든, 수련인으로서 그에게는 필연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제자: 몇몇 제자가 매우 큰 병업의 마난(魔難)을 당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체 발정념으로 도와주어도 됩니까?

사부: 물론 된다. 나는 저번에 이미 이 문제를 말했다. 그러나 어떤 수련생들은 자신의 내심에서부터 말해 봐야 한다.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다고 느끼는가? 정법시기의 이렇게 위대한 생명으로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일단 문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곧 “대법제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라고만 말하지 말라.

장기간 이래, 일부 수련생들에게는 제거하지 않은 근본적인 집착이 있다! 최후까지 쌓여서 넘어가지 못하면 난(難)은 곧 커진다. 문제가 나타나면 心性(썬썬) 상에서 찾지

사부: “우주는 물질의 극한이 있다.” 이 말은 마치 이미 끝까지 말한 것 같지 않은가? 끝까지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더 미시적인 데로 가면 그것은 물질이 없고, 그것은 물질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 지금의 물질과 이미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물질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언어로는 전혀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의 최후를 말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제자: 어떤 수련생은 자신이 법에 동화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아주 바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많은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법노정이 아주 빠르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면 즉시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마음을 조용히 하여 법 공부하고 일에 부딪혀서 안에서 찾는다면 정진함에 속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사부: 그렇다. 아주 많은 일이 사람의 관념에 의해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바, 이전에 자신이 습관이 되었다고 말한다. 오늘날 대법제자에게 부여한 것은 신의 상태이므로 당신은 신의 상태로 걸어 나아가야 한다. 아주 많은 일들을

념이 부족하다는 말은 행위가 단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어떻게 토론하고 정념의 문제를 어떻게 말하든지 여전히 정념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든 정념이 늘 있게 할 수 있으면 당신의 행위는 반드시 올바르게 나아갈 것이다. 거듭 반복하여 말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대법제자로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제자: 제자는 7.20 이후, 2000년에 법을 얻었습니다. 7.20 이전에 법을 얻은 제자와 똑같은 위덕을 갖출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부: 이전에는, 7.20 이전에 수련생은 개인수련이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진정으로 위덕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시기에 법을 얻지 않았는가? 갖출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모두 같은 것이다. 그들 역시 이 시기에 위덕을 수립하고 있고, 당신은 다만 개인수련과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도하는 일을 동시에 융합해서 하고 있을 뿐으로, 그것은 모두 영향이 없다.

제자: 우주는 가장 미시적인 물질의 극한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바로 법의 가장 높은 체현이 아닙니까? ‘眞(전)·善(션)·忍(린)’의 가장 정점이 아닙니까?

않고 근본적으로 자신을 제고하지 않으며, 정말로 이 일을 내려놓고 다른 한 방면에서 정정당당하게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겨냥하여 아이고 나의 이 일이 어찌 아직도 지나가지 않는가? 내가 오늘 좀 잘했으니 마땅히 좀 좋아야 하는데, 내가 내일 좀 더 잘하면 마땅히 좀 더 좋아지겠지! 라고 한다. 그는 언제나 이 일을 내려놓지 못하고, 보기엔 그래도 마치 보여주듯이,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보라고 한다. 당신이 잘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위해 잘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진정한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확실히 일부분 수련생들은 어떻게 했는지 정말로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당신은 정말로 중국대륙의 수련생들처럼 사악의 그런 환경에서 여전히 법을 실증하고 있으며 생사를 넘나드는 과정 중에서도 모두 생사를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걸어온 것인가? 정말로 당신을 그곳에 놓아두면 당신은 할 수 있는가? 물론 당신들 개개인이 모두 이런 과정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현재 부딪힌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당신은 정말로 지나올 수 있는가? 수련생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내가 말했는바, 같지 않은데, 틀림없이 수련 중의 표현이 같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아무런 일도 없다고 하여 정법도 아주 잘한

것이라고 느끼지 말라. 같지 않다. 근본 정황은 같지 않으며 참조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는바, 수련은 참조가 없으며 모델이 없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다 하여 나도 곧 그를 따라 배울 것인가? 같지 않은 것으로서, 당신의 상태가 그에게 나타나는 일은 없다.

사실 많은 수련생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지만, 더욱이 99년 7.20 이후부터 걸어 나온 후 많은 문제를 정말로 근본에서부터 잘 살펴보아야 하고 냉정해져야 하며 진정으로 사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은 내가 대법제자이니 아무런 것도 있지 말아야 하고 있으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떠하니 당신도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매 사람마다 상황은 같지 않으며 관건은 당신들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온종일 그 사상 중에서 집착하는 것은 속인의 것이며, 심지어 정(情)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종잡을 수 없게 되면서도 마난(魔難)이 오면, 당신은 “나 대법제자가 장기간 마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 (웃 사람 웃음) 아이고, 그러므로 어떤 때에 사부가 중하게 말하면 좋지 않고 가볍게 말하면 또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곧 결속하게 된다. 당신들은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정말로 원만을 이루는 그날,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는 영원히 전해나갈 것이다.

제자: 어떤 일을 잘하지 못했을 때 아주 가책을 느끼는데요, 수련의 신심(信心)을 상실할 정도로 과분하게 가책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알지만, 좀체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부: 결심이 없다. 결심이 부족하다. 대법제자로서 당신은 중국대륙의 대법제자들이 당한 박해를 보라. 똑같은 대법제자인데 여기에서 요만한 결심마저 내리지 못한다니, 무엇에 그리 집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정념이 부족한데 정념이 충족하면 당신은 해낼 수 있다.

제자: 사부님, 저는 일부 수련생들이 ‘정념(正念)’에 대해 아주 중시하지만, 일부는 ‘정행(正行)’을 소홀히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류할 때 어떻게 정행(正行)할 것인가를 거의 토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행과 정념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사부: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누가 정행(正行)하지 않았음을 보았다면, 사실 그는 정념이 부족한 것이다. 사상이 사람의 행동을 지도하기 때문인데, 당신의 정념이 충족할 때면 당신의 행위는 틀림없이 단정하다. 정

가 생각한다. 어떤 시기(時機)·기연(機緣)이 오지 않고, 어떤 시기가 성숙되지 않으면, 그가 할 수 없음은 그 상생 상극의 이치가 매우 절대적으로 이 일체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은 절대로 한 가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한 가지 큰 나쁜 일을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신을 떨어지게 하지도 않는다. 그는 절대 하지 않는다. 과거에 화상(和尚)이 사람을 제도한다, 사람을 제도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어떤 때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의 상상과 같이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은 상생 상극의 이치가 못 신들로 하여금 하고 싶어도 감히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제자: 범정인간 이후의 인류는 오늘날의 인류에 대하여 기억이 있습니까?

사부: 인류는, 장래의 인류는 세세대대로 오늘날 정법의 이 일을 전하고 칭송할 것이다. (박수) 이번 박해의 진상을 아직 전면적으로 그것을 인류에게 펼쳐 보이지 않았다. 인류는 놀랄 것이다. 대법제자의 원만, 인류가 믿지 않던 일체의 출현, 변이 중에 있는 인류의 일체의 것이 모두 바로잡히는 과정은 심금을 울리고, 놀랍고 또한 두려울 것인데, 일체가 모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역사를 인류

데, 정말로 대법제자들이 백일비승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모두 볼 수 있다. (박수) 원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날 당신은 거기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다! 잘 수련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보전대 울어도 늦었다.

제자: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는 남녀관계의 일이 있는데요…….

사부: 방금 전에 내가 이 문제를 이미 말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한 일이 ‘대법수련생’이 될 자격도 없다! ‘사람’이라는 말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은 그래도 당신이 ‘대법제자’라고 말하는가?!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알고 있는가?!

사부는 때로 당신들이 한 그런 일을 볼 때 정말로 아주 상심한다. 그러나 나보고 당신을 포기하라고 하면 사부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 정말로 쉽게 당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렇게도 향상(上進)할 줄 모른다! 그렇게도 분발할 줄 모른다. 대법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사람’이라는 글자에도 부족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은 그래도 당신이 대법제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자.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바로 대법제자 신분에 면목이 없는 일을 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가장 좋기로는 자신이 그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라. 이렇게 하면 당신들의 아주 많은 것을 없애 버릴 수 있으며, 동시에 당신 자신들로 하여금 결심을 아주 단단히 먹게 할 수 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 하겠는데 시간은 정말로 당신들에 대하여 유한한 것이다. 이런 좋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모두 고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는데, 내가 말하건대 아직까지 이런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중공 사악한 깡패 집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당신을 포기했을 때가 바로 당신이 지옥에 떨어질 때이다! 나는 조금도 당신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직 결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에 대해서는 모두 기회이다. 사부는 거듭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자: 9일 반에서 신수련생에게 발정념을 가르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사부: 사실 신수련생은, 당신이 그에게 꼭 발정념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웃으심) 왜냐하면, 그의 그 당시 능력이 아직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필경 법을 방금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정이 있어야 한다. 성급하게 그들에게 발정념을 하라고 하지 말라.

비로소 그곳에 머무를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선(善)하지 않을 뿐 악(惡)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람의 말로 말하면 마는 바로 악(惡)이고, 부처는 바로 선(善)이다. 그러므로 또한 대립되어 존재하고,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대립되는 것이다.

과거에 말하기를, 사람의 일념에서 선과 악이 나오고, 선과 악은 사람의 일념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 우주는, 누가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해도 아주 어렵다. 부처가 좋은 일을 하려 일념을 내면, 곧바로 악한 것이 따라온다. 그가 얼마나 큰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큰 나쁜 일이 온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얼마나 큰 좋은 일을 하면, 당신에게 보증하고 그만큼 큰 나쁜 일을 준다. 어떤 것은 이 공간에 반영되고, 어떤 것은 이 공간에 반영되지 않고 그것은 다른 공간에서 반영된다. 예를 들어 사람을 위해 한 가지 큰 좋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감격해 하는데, 당신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생명이 손실을 당했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얼마만큼의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의 나쁜 일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과거의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이치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한 생명이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전혀 할 수 없었다. 그 신, 당신들은 모두 신이 누구를 제도하려면 무엇 때문에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제자: 부(負)의 생명과 악(惡)은 무슨 관계입니까?

사부: 실제상 나는 상생상극의 이치와 우주의 부동한 생명의 대응관계를 말하면서 비로소 부(負)의 생명을 말했다. 낮은 층차에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있다. 귀신을 말하자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막연히 하는 말로서 사실 귀신(鬼), 매(魅), 망(魍), 량(魎), 괴(怪), 요(妖), 혼(魂), 마(魔) 등등으로 아주 많고 많은 종류이며 바로 현대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통일적으로 ‘귀신’이라고 불렀다. 사람 여기에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있으며, 더 위에는 부처가 있고 마가 있으며, 또 위에는 바른(正)생명과 부(負)의 생명이 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그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욱 좋고, 고층일수록 더욱 아름답기 때문이다. 아주 높은 층차 속에는 정부(正負)생명이 있는데, 부(負)의 생명을 당신은 그것을 마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마와 완전히 다른 한 가지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생명과 대립되기 때문에 일정일부(一正一負)이다. 아래일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법왕(法王)과 마왕(魔王)이 나타난다. 그 부처가 바로 법왕이다. 또 그 마왕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그것도 사람의 칠정육욕이 없고 사람의 집착이 없는, 그 경지의 생명이므로 그것이

제자: 저의 이해는, 대법제자의 개인수련은 그가 관련된 천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입니다. 법이 대궁을 바로잡을 때 미래의 수련하는 사람은 그가 대응되는 천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 때에 그들은 이미 법에 의하여 바르게 잡혀졌습니까?

사부: 당신이 수련과정 중에 당신 자신과 대응되는 그 천체가 아무리 커도 당신 수련의 성공에 따라 그것들도 모두 바로잡히는데 이는 틀림없다. 당신이 수련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들도 바로잡힐 수가 없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정법 — 나의 홍대한 정법지세가 넘어 왔을 때 그때에는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쁜 것은 처리한다. 그러므로 당신들로서는 정법이 도래하기 전이 중생을 구원하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때가 되면 기다리지 않는다. 정법홍세가 왔을 때 마땅히 어떤 모양이어야 하면 바로 그런 모양이 된다.

제자: 전체 이스라엘 수련생들이 사부님께 안부를 여쭙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사존님, 우리들에게 모세, 이스라엘과 정법의 관계

를 알려 주세요.

사부: 모세는 정법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고 하여 당신들이 속인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속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모세야말로 과거 유태신도들을 제도한 신이다. 유태인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그들을 책임지는 신이 바로 모세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호와는 사람을 제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더욱 높은 신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제도하는 신은 모세이다. 모세이며, 예수이며, 성모마리아이며 모두가 한 층에서 사람을 제도하는 신이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유태인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은 모세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한 상황이다. 유태인도 신이 만든 민족이므로 정법 중에서 역시 구원 받아야 할 대상이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내가 당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좀 말하겠다. (웃 사람들의 웃음) (박수) 방금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인을 만들었다고 했다. 사실 이 우주는 바로 내가 일관적으로 말해 온 소우주인데, 이 소우주는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중국 그 전설 중에서 말하는 천지를 개벽한 반고(盤古)이다. 그는 중국인이 아니며 그는 또한 지상의 다른 민족의 사람

당신 원래의 신의 형상을 닮게 될 것으로, 나는 당신의 것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원래 부처였다면, 당신은 여전히 부처이고 당신이 원래 도(道)였다면, 당신은 여전히 도이다. 나는 당신의 후천 우주에서 좋지 않게 변한 일체의 요소를 제거해 주는 동시에, 이 대법에 동화하게 하고, 당신을 위해 일체를 바로잡아줄 것이며,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미래 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를 줄 것이다. (박수)

우주 속에는 바로 부동한 생명이 있고, 부동한 중생이 있으며, 부동한 신이 있으므로 모두 똑같이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안 되며 그러면 우주도 변영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바로 이러하다. 이런 생명으로서는 외형이 어떠한지 모두 그의 역사상의 한 과정으로서 소중히 할 가치가 있는바, 그것은 우주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방금 전에 당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좀 말했다. (웃으심) 내 생각에 여러분들은 쪽지를 더 제출하지 말라. 아직 몇 장이 남았는데 나는 읽고서 끝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의 시간을 더 많이 점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교류회이므로 당신들이 말하고 서로 촉진해야 한다. 방금 쪽지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정체 제고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정체 제고하는 기회이다.

웃음) 마치 웃과 같다. 과거의 사람도 이렇게 전생했다. 대법이 전해지기를 기다려 이런 신들이 온 이후, 그 신들이 만든 그 지상의 사람은, 이치에 따라 말하면 그들도 정법이 일을 위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 사람이 역사상에서 여기까지 걸어오기 또한 쉽지 않으므로, 그들은 중국인이 저승이라고 부르는 다른 공간에 남겨진 채 전생하여 오지 못했다. 현재 그것들의 그 쪽은 모두 정법 중에 동화가 이미 마무리되었다. 현재 정법의 홍세(洪勢)도 사람의 이 공간의 가장 표면으로 왔고, 또한 인피(人皮)의 가장 표면으로 왔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동한 민족은 여전히 그들을 만든 신의 발아래의 입자와 같다. 비록 사람들이 모두 이 공간에서 서로 융합되고 서로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한 개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근대에 이르러, 부동한 인종의 가족 속에는 또 부동한 천상의 신이 왔는바, 이상 말한 것은 표면 사람의 정황이다. 물론 대법을 전함에, 나는 오늘날 백인을 황인종으로 제도하고, 황인종을 백인으로 제도하지 않는바, (못 사람들이 웃음) 이 점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해야 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당신이 어디에서 왔으면 그 온 곳으로 가도록 한다. 당신이 잘 닦으면 나는 당신에게 더욱 높은 과위를 줄 것이다. 당신이 신이었다면, 당신은 여전히

도 아니고, 그는 천상의 신이며 그는 우주이다. 반고가 천지를 개벽한 것은 전 한 시기 소우주가 휘멸된 후 소우주를 다시 만드는 과정 중에서 생긴 것이다. 그의 신체(身體)는 바로 이 소우주의 ‘성주괴멸(成住壞滅)’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그렇지 않다. 내가 신(神)은 삼위일체(三位一體)라고 말했지 않았던가? 신의 몸(神體)이 있고 그의 진신(眞神)이 있는데, 그의 진신(眞神)이 아니라 그의 신체(身體)가 바로 내가 말하는 그 소우주이다. 세인들은 역사의 전설 중에서 그는 어떠한가하게 살아났다고 말한다. 혼돈상태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된 연후에 그가 생겼으며, 그는 천지를 갈라놓고, 일어서서 하늘을 떠받쳤다고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전설 중에서 그를 갈수록 인미화(人味化)했고 인정화 했는데,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 진실을 개변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체는 바로 소우주이고 층층이 중생이 있다. 반고우주(盤古宇宙)는 처음 생성될 때 마치 사람의 모체 속 태아(胚胎)와 같이, 그 소우주는 더욱 방대한 천체 속에서 단지 한 개의 입자였다. 천체는 생명을 생성하는 일체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데, 전 한 시기의 그 소우주가 ‘성주괴멸(成住壞滅)’ 중에서 결속될 때 천체는 새로이 생성될 소우주를 양육하고 있었다. 전 한 시기의 소우

주가 폭발한 후 혼돈상태 속에서 새로운 이 소우주는 점차적으로 생성되었고, 반고의 진신(眞神)도 이 속으로 들어왔다. 생성되는 과정 중 내면(裏面)의 층층의 물질은 층층의 하늘과 땅을 조합했고, 동시에 층층의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을 생성했는데, 반고의 진신(眞神)과 같은 신과 층층의 중생들을 포함했다. 소우주가 생성되었다. 사람의 신체는 작은 입자가 큰 입자를 구성하고, 그런 후 큰 입자가 더욱 큰 입자를 구성하는데, 그의 신체 또한 이렇게 작은 입자가 큰 입자를 구성하고, 큰 입자는 더욱 큰 입자를 구성한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었다. 물론 이 분자는 또 성구를 구성하고, 그 성구는 또 은하계·성계(星系)를 구성하고, 부동한 성계는 또 더욱 큰 천체 우주를 구성하는데, 바로 이런 구조이다. 사람, 지금의 과학자는 입자를 보았을 뿐, 입자 사이의 연계를 보지 못했다. 일체 입자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 반고, 그는 생성된 후 마치 모든 우주의 중생과 같이 그에게도 ‘성주괴멸(成住壞滅)’의 과정이 있었다. 사람들이 전설 속에서 말한 것은 그의 ‘성(成)’의 과정이다. 지금은 실제 이미 최후의 그 과정에 이르렀는데, ‘괴멸(壞滅)’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노쇠의 과정으로 걸어갔고 지금이 바로 노쇠 이후의 괴(壞)의 시기로, 최후이다…… 사람의 언어

므로 신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정말이다. 오늘날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온 것이다.

역사상 내가 대법을 전하기 전에, 그 당시 신이 만든 사람은 그의 신체와 그의元神(웬선)을 관계치 않고 모두 삼계 내에서 생성된 것이다. 내가 이전에 당신들에게 사람의 발전과정, 즉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충실한 사람으로 되는 과정을 말한 적이 있다. 근대에 와서 사람은 이미 아주 이지적이고 사상의 사유방식도 아주 이성적으로 되었다. 여기 에까지 도달하면 대법을 전해야 하므로 천상에서 아주 많은 신들이 내려와 사람으로 전생했다. 그 사람의元神(웬선)은 어떻게 온 것인가? 신이 만든 이 인피(人皮)의 표면은 위에서 온 생명에게 지배당했고 원래 사람의元神(웬선)은 모두 저승에 남겨졌다. 사람도 윤회전생(輪迴轉生)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가족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정 시기에 이르면 이 가족을 거두어간다. 생을 다한 후, 사람이 죽으면 가족을 거두어간다. 우리가 무덤 속에 묻힌 그 가족을 보면, 그 썩어가는 가족은 사람이 후천에 먹은 양식으로 자라난 그 부분이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선천적인 그 가족이다. 선천적인 그 일부분은 거두어가는 것으로서, 누가 다시 환생할 때 누가 다시 입는데, (못 사람들이

의 자세는 부처의 수인(手印)과 아주 유사하다. 인도인은 정말로 부처가 만든 민족이다. 그 동방사람은 바로 여와가 일부분을 만들었고 또 다른 일부분은 도(道)가 만들었다.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기(早期)의 북미와 남미의 인종은 최초의 황인종이었다. 그들은 홍인종(紅種人)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황인종으로, 태양에 탄 것이다. (못 사람들의 웃음) 진정한 홍인종은 고대 이집트사람인데 지금은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대다수가 흑인과 혼혈되었다.

흑인 역시 흑인 천상의 신이 만들었는데, 또한 한 신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흑인의 형상, 그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천상의 신들 중에는 웃을 입은 이가 있고, 천을 두르는 이가 있다. 도(道)는 웃을 입고, 아주 많은 천상의 신들은 한 조각의 큰 천을 두르고 있다. 부처는 대다수 한 조각 황색 천을 두르고 있고, 백인의 신은 대다수 흰색 천을 두르고 있다. 중국말로 말하면 한 장의 천을 몸에 감고 있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옛날의 회화 속에서, 조각 속에서도 볼 수 있다. 과거에 유럽인들도 한 조각 흰 천을 돌렸다. 흑인의 신은 한 조각 넓은 빨간색 천을 두르고 있다. 신이기 때문에 그의 피부색이 어떠하더라도 모두 아주 신성하다. 이곳에서 법을 전하기 위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야 했는데, 어떤 모양의 신이면 바로 그런 모양의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

로 신을 말하면 듣기에 좋지 않은데, 다시 말해서 이미 안 되는 시기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정법 또한 바로 이 시기에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성될 때 우주 중에는 부동한 층차의 입자가 있었으며, 게다가 이 입자는 생성되는 과정 중에서 또 생명을 산생(產生)했다. 우리 지구는 바로 그의 신체의 한 부분이다. 그의 신체 속 세포의 한 부분이다. 마치 우리 지구와 같은 이런 생명이 있는 별이 이 소우주 도처에 널려 퍼져있는데, 다만 우리 오늘날 사람 이런 생명이 없을 뿐이다. 그 생명들은 우주의 가장 표면, 가장 저급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신의 형상이 없었다. 시초에는 삼계의 구분이 없었다. 삼계가 있게 된 것은 소우주의 표면 한 층에서 대법을 전해야 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특수하게 3대 층의 생명 경지로 이 범위를 선정하여 스스로 체계를 이루게 했다. 반고는 신이고 반고의 체내가 바로 소우주이다. 그러므로 전반 소우주의 모든 천체 속에는 모두 부동한 층차의 신과 삼계 중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표면 공간 내 생명만이 형상이 추악하고 괴상했다. 그러므로 삼계는 당초 정법(正法)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 삼계의 범위 내에서 태양계와 지구도 만들었다. 물론 지구의 수명은 우주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구 이전 이 위치에는 본래

별이 있었다. 이전의 그 별 위의 생명은 모두 외계인의 형상으로서, 생태환경이 극히 열악했다. 왜냐하면 가장 좋지 못한 곳에 신의 형상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사람은 또 신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래의 지구 위 생명은 모두 외계인, 그러한 아주 추한 형상들이었다. 정법의 일을 이곳에서 하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우주 중생을 구도 할 수 있고, 가장 표면의 중생까지도 구도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 삼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왜 외계인 그러한 생명이 법을 듣도록 하지 않고, 사람을 만들었는가? 우주의 법을 그러한 생명에게 듣게 하고 나의 제자가 되게 하면 우주, 못 신에 대한 모욕과 같기 때문이다.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 후 천상에서 일부분 신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은 모두 자신의 모습에 따라 지구에서 사람을 만들었다.

중국 고대에 여와(女媧)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들은 신통으로 했고 손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다. 게다가 사람의 신체는 그 구조가 모두 아주 복잡한 것으로 손으로 빚어낼 수 없다. 사람의 아둔한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은 법력(法力)으로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의 공(功)은 미시적인데서 가장 표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있기 때문에 그 가 동시에 하면 단번에 이루고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그는

또 사람의 시간에서 하지 않고 그는 인류 공간 내의 시간을 초월했다. 그러므로 사람 이 쪽의 시간에서 보면 단번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 당시 파견되어 내려온 신은 몇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유태인들이 말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와 유태민족 이런 사람을 만들었고 이런 사람은 남유럽의 일부분을 포함한 이런 인종이다. 북유럽의 일부분 백인은 그 외의 신이 만들었다. 4가지 종류의 백인 신이 4가지 종류의 백인을 만들었다. 사실 아랍사람은 과거에는 백인이었고, 지구 북부에 살았는데, 지금의 이 대륙판막이 아니다. 원래의 대륙판막은 9천 년 전에 변했다. 그들은 과거에 북쪽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그 대지의 변화가 그들을 지금의 이곳으로 이동시켰다. 근대 역사 중에서 보면 칭기즈 칸이 아랍지역을 점령하기 전 아랍사람들은 완전히 백인의 피부와 같았고, 형상도 지금의 유럽 사람의 모습으로, 단지 짙은 검은색 머리카락, 짙은 검은색 눈일 뿐이다. 칭기즈 칸의 몽골대군이 간 후 그 지역의 사람은 혼혈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피부는 중국인과 같고, 형상 속에는 중국 사람의 형상이 배여 있고 또 유럽 사람의 형상이 배여 있다. 원래 그들 역시 단독적인 한 신이 만든 것이다.

인도인은 부처가 만들었으므로 인도인의 춤, 거동, 그 손